

지역 소식통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과 시대정신' 학술대회 가져

정읍시와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봉승)가 주최·주관한 '동학농민혁명과 시대정신 학술대회'가 지난 24일 동학농민혁명 교육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과 유족, 기념사업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128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그 역사를 되짚어 보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길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이념을 계승하기 위한 선양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민족의 정체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학술대회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의 '전봉준 장군 심문기록 분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점검 추진

정읍시가 2022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위한 집중 안전 점검 기간 내 가정용 자율안전 점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 자율점검 분위기가 확산해 나갔다.

국가안전대전환은 대형인사 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전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활동이다.

올해 점검 기간은 지난 8월17일부터 10월14일까지 59일간이다. 시는 6개 분야 93개소에 대해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펼치고 있다.

관련해 시는 지난 23일 상태 인입과 입입면 이상 회의에서 가정 내 자율안전 점검을 홍보한 데 이어 26일부터 수성동을 비롯한 지역 리·통장 회의에 참석해 홍보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제33회 정읍사 문화제' 성황

'시민 만족 친절 민원 행정' 강조

부도상 시상·축하공연·정읍사가요제 등 다채로운 행사 '풍성'

정읍시 대표 축제인 '제33회 정읍사 문화제'가 지난 24일과 25일 정읍시공원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정읍사 문화제는 정읍사 여인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부덕과 정절을 기리며 천혜의 비경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단풍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다.



상 시상식(유옥순, 정읍시 소성면)과 함께 경관조명 점등식,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

천 년의 기다림 영원한 사랑'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시민과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을 추억을 남겨준다는 평이다.

24일 오전 채수 의례와 정읍사 여인 제례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정읍사 문화제는 정읍예술단체의 공연과 전문 퍼포먼스 팀의 화려한 거리퍼레이드로 이어졌다.

오후 6시 기념식에서는 트로트 요정 김다현의 개막 특별공연에 이어 부도

상 시상식(유옥순, 정읍시 소성면)과 함께 경관조명 점등식,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

특히 정읍사공원 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놀이 쇼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LED 풍선 날리기는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25일에는 신인가수 등용문인 정읍사가요제가 특별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가요제는 전국에서 120여 명이

신청, 지난 17일 예심을 거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 진출 12개 팀이 최종 선발됐다.

이날 12개 팀의 경연 결과 최정철 씨가 민영웅의 가슴은 알죠 라는 노래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며 시상금 3백만원과 전라북도 가수협회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이 밖에도 사랑의 염서 보내기와 소원등 달기, 페이스페인팅,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정읍사공원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많은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학수 시장은 "1300여 년 전 정읍사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이 모두에게 전해질길 바란다"며 "정읍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정읍사 문화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이학수 시장이 직원들의 친절도 수준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26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민들의 곁에서 일상의 삶과 직결된 서비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필요성이 갈수록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읍면동 직원들 대상 민원 응대,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6급 이상 공무원들의 출근수범과 따뜻한 배려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 조직 내 친절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 서비스 실현을 위해 국민신문고 답변 처리 시 민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실히 답변하고, 처리 절차 등 철저한 준수사항 이행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부서별 민원 서식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종합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올바른 폐기물 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폐의약품은 일반쓰레기로 매립하거나 하수구에 버리면 약 성분이나 유해물질이 토양과 수질 오염은 물론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주요 기업 대표들 투자유치 자문단 위촉 간담회

고창군, '타깃 기업 발굴'

민선 8기 고창군이 국내 주요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투자유치 자문단을 꾸렸다. 심덕섭 고창군수의 '친환경 ESG기업 유치 공약'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업(경제)관계자 5명을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자문위원들은 국내 주요기업 대표와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영노하우, 경제전문지식, 광역정보망,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국내외 우수·우량기업 투자유치를 살피고 타깃기업 발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심덕섭 군수는 지역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크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친환경 기업 유치를 공을 들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 반도체·자동차 부품산업 등 첨단 미래산업과 친환경 ESG기업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창일반산업단지 등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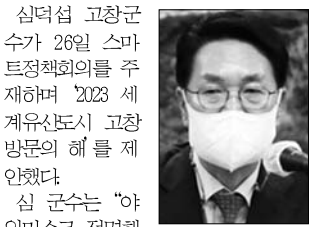
칭변경도 진행되고 있다. 군은 기존 산단의 노후 이미지를 탈피해 브랜드 가치를 개선하고, ESG 친환경 산업단지로 바꿔낼 계획이다.

투자유치 자문단 역시 기업이 입장에서 산단의 장기적 사업전망과 구도를 잡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업 투자유치에 힘을 쏟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 제안

심덕섭 고창군수, 스마트정책회의 주재



심덕섭 고창군수가 26일 스마트정책회의를 주재하며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제안했다.

심 군수는 "야외마스크 전면 해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창의 이름값(네임밸류)을 높이기 위해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세계유산 5관왕(고인돌, 갯벌, 판소리, 농악, 생물권보전지역)을 총망라한 축전 등 활력 넘치는

내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 군수는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묘소관리 소홀함을 지적하고, 진입로와 봉분 잡초 제거 등을 주문했다.

심 군수는 "고창군이 판소리의 성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신재효 선생의 묘소를 찾아 갔을 때는 풀이 우거져 광장이 어려웠다"며 "진입로와 봉분 정비 등을 통해 고창이 낳은 동양의 색인스피어 신재효 선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요일(30일)부터 시작되는 모안성제 내빈 의견 준비 사항, 군청 직원 공직기강 확립방안 등이 논의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3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

부안군은 2023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2,712ha 배정이(경관 2,099ha, 준경관 503ha) 확정됨에 따라 26일부터 읍면 배정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한다고 밝혔다.

배정받은 면적은 전북도 총면적 9,072ha의 30%(2,712ha)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하는 9개 시군중 제일 많은 면적을 배정 받았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해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

성화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법인이며 1ha당 경관작물은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급은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과 부안군(읍면)에서 작물 파종, 재배관리, 개화 상태를 필자별로 꼼꼼히 확인 후 이뤄지며, 재배관리와 마을협약 이행실태 정도에 따라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된 도농교류나 경관축제 등도 앞으로는 단지별로 의무적으로 개최를 해야 한다.

또한 부안군은 유채를 활용한 가공 및 판매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증진하고자 올해 1ha의 식용유채 채종포단지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식용유채 채종포단지에서는 순도 높은 고품질의 NON-GMO 유채종자를 생산하게 되며 앞으로 생산된 유채종자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유채 식용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장경준 군 농업정책과장은 "경관보전직불제가 단순히 꽃만 보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로 2차 3차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해 농가소득증진은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로컬푸드' 라이브커머스 판매 성황

부안군은 농산물 판로개척의 새로운 트렌드인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26일 오전 11시 부터 한시간 동안 진행된 11번가 LIVE11 "생소 외전 28차 부안로컬푸드 특집" 방송은 실시간 시청자수 27만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군은 이날 11번가 라이브방송에서는

△100% 당일 직접 조업해 살이 딱 찬 활짝핀 △달큰한 살이 딱 차 오동통한 꽃게의 순살만 발라낸 순살게장 △변산반도에서 해풍맞고 자라 당도가 높은 거봉이 정상기보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어, 실시간 품목별 판매 베스트 1위에 오르는 등 방송 1시간동안 372건, 1200만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